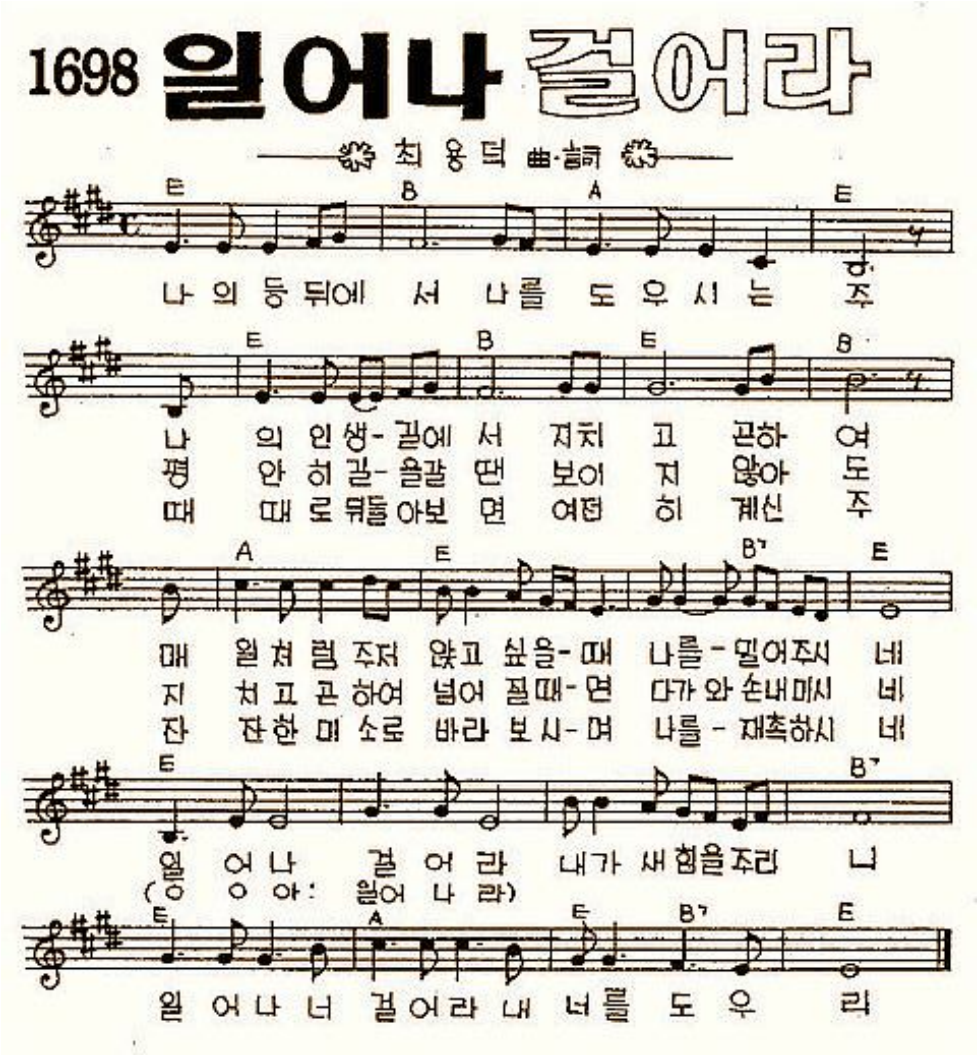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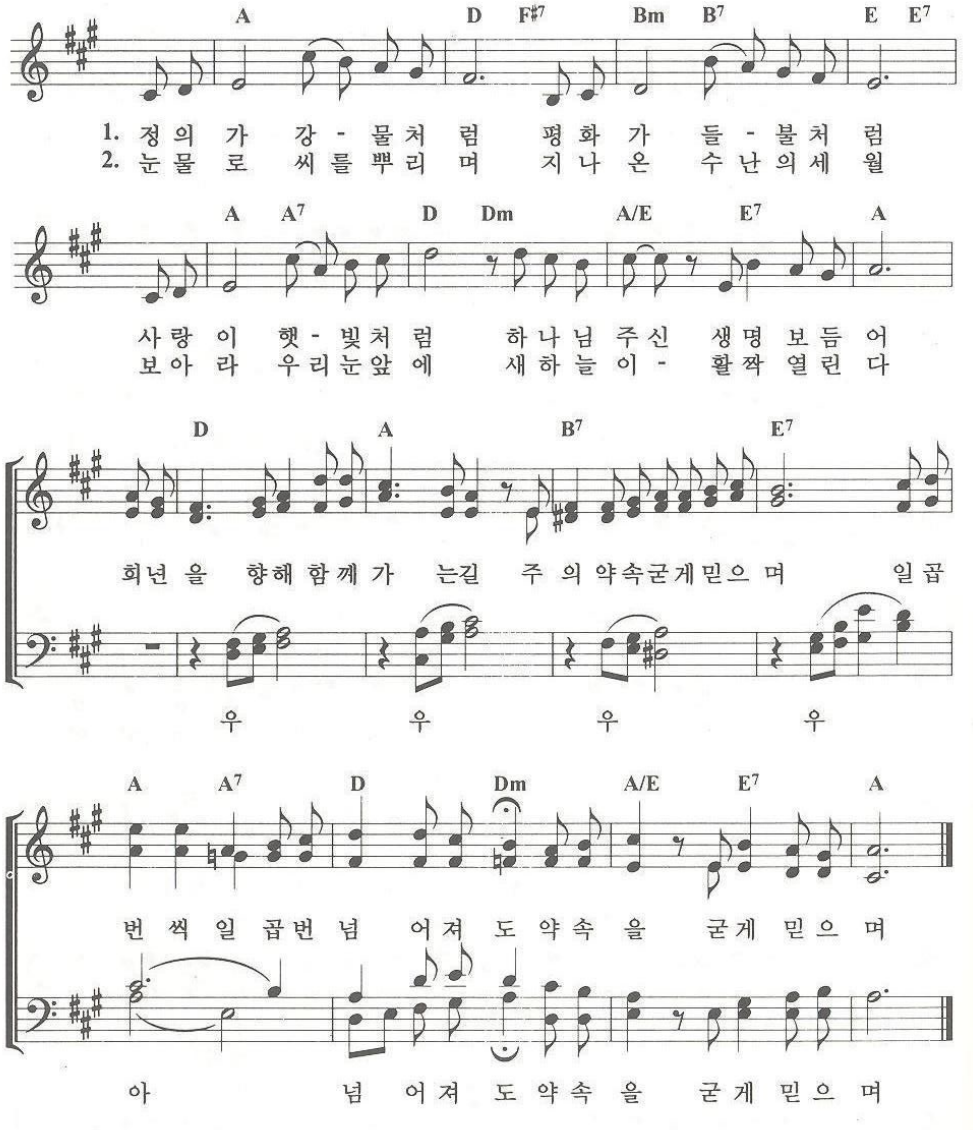

1698 일어나 걸어라
최 용 덕 曲·詩
나 의 등 뒤에 서 나를 도 우 시 는 주
나 의 인 생 - 길에 서 지치 고 곤하 여
평 안 히 갈 - 을길 땐 보이 지 않아 도
때 때 로 뒤돌 아보 면 여전 히 계신 주
매 월 쳐 림 주저 앉고 싶을 - 때 나를 - 밀어주시 네
지 치 고 곤 하여 넘어 질때 - 면 다가 와 손내미시 네
잔 잔한 미 소로 바라 보 시 - 며 나를 - 재촉하시 네
일 어 나 걸 어 라 내가 새 힘을주리 니
(오 오 아: 일어 나 라)
일 어 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 리

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


A D F♯7 Bm B7 E E7
1. 정의 가 강 - 물처 럼 평화 가 들 - 불처 럼
2. 눈물 로 씨를 뿌리 며 지나 온 수난의세 월
A A7 D Dm A/E E7 A
사랑 이 햇 - 빛처 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 어
보아 라 우리눈앞 에 새하늘 이 - 활짝 열린 다
D A B7 E7
희년 을 향해 함께 가 는길 주 의 약속굳게믿으 며 일곱
우 우 우 우
A A7 D Dm A/E E7 A
번 씩 일 곱번 넘 어져 도 약 속 을 굳게 믿 으 며
아 넘 어져 도 약 속 을 굳 게 믿 으 며

시편 119:73-96

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 주소서. ○ 당신께서 명하신 것 가르쳐 주소서.
74 내가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기에 ○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, 나를 보고 기뻐하리이다.
75 주여, 당신의 판결은 옳습니다. ○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도, 당신의 진실하심 때문이옵니다.
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○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.
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○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.
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: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. ○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.
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○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, 나에게 오게 하소서.
80 이 마음이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○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.
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○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.
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. ○ 언제 나를 위로해 주시렵니까?
83 나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으나 ○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.
84 당신의 종이 살날이 많지 않사오니 ○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?
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○ 내 앞에 함정을 팠습니다.
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, ○ 거짓이 나를 핍박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.
87 이 땅에서 저들이,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○ 나는 당신의 계명을 버리지 않으리이다.
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. ○ 친히 일러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.
89 주여, 당신말씀 영원하시고 ○ 변함없이 하늘에 있습니다.
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, ○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습니다.
91 모든 것이 당신의 종들이오니 ○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습니다.
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더라면 ○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.
93 계명들을 주시어 나를 살려 주셨으니 ○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.
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. ○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.
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○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.
96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는 줄 아오나, ○ 당신의 계명들은 완전하시옵니다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

복음서: 요한복음 5:1-18

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,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. 예루살렘에 있는 '양의 문' 곁에,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,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.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,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. [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.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.]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.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,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. "낫고 싶으냐?"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. "주님, 물이 움직일 때에,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. 내가 가는 동안에,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."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"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." 그 사람은 곧 나아서,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.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.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. "오늘은 안식일이니,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."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. "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, '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' 하셨소."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. "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?"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,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.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, 예수께서는 그 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.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. "보아라. 네가 말끔히 나았다.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.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." 그 사람은 가서,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.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,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, 그를 박해하였다. 그러나 [예수]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, 나도 일한다."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. 그것은,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,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,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.

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
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